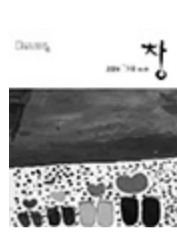


시민 주도적 문화 담론 제시 통해 지역사회 변화 조명

문화담론지 '창' 제65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정국의 혼란과 대형 인명피해를 낳은 비극적 참사는 새해를 맞은 문화예술계에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 슬픔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해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그간 문화계가 해오던 일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난 2005년 창간돼 지역의 문화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 겨울호(통권 65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시민 주도적 문화 담론을 담아내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호의 표지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개최한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인문예술축제에서 시민 작가로 참여한 정민식(정상진, 정유진, 유리) 가족의 작품으로 장식됐다. 이영숙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 부회장의 글이 이번 호의 서문을 연다.

특집기획 '우주인(우리는 주제적 문화



지난해 9월16일 열린 제14회 '지역문화 교류마당'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인)에서는 '달빛 여행 떠나는 컨설턴트', '민중의 시인이 된 경찰관', '결혼이민자 정착을 돕는 사장님', '마을 만드는 자영업자', '광주를 알리는 금융맨', '노란 리본 묶는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제적 시민들이 문화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며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문화진단'에서는 김광진 전 문화경제부시장의 '미술 도시 광주를 위한 꿈'을 통해 미술 도시로서 광주의 가능성과 비전을 모색한다. 조지웅 광주 장애인문화협회 지원과장은 이번 호에서 최근 문화예술 지원 삭감이 지역 문화예술계에 미칠 우려와 문화도시 광주 실현에 관한 이

야기를 전했다.

이어 '문화해먹'에서는 여행과 씬을 주제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현식 멘토스쿨 원장은 '바위가 멈추는 곳'을 통해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의 풍경과 그 길이 선사하는 의미를 풀어내고 송재환 연구위원은 '느린 걸음, 씬이 있는 곳'에서

광주 동구인문학당을 중심으로 여유와 사색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동네밧네'와 '맛의역사' 코너에서는 양림역사문화마을과 송정떡갈비의 배경을 엿볼 수 있다. '법잘알오빠'에서는 김민표 변호사의 '상속과 유언' 두 번째 이야기가 수록됐다.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 상식을 알려며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올해 4월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이번 호에서 시민이 문화 주체자로서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변화와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관계자는 "문화담론지 '창'을 통해 향후 시민이 지역 문화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미래를 제시하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며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담론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담론지 '창'은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문화담론지로 공공기관 및 문화유관기관, 시민들에게 배포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이 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누리집(www.rcef.or.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박찬기자 chan.park@ji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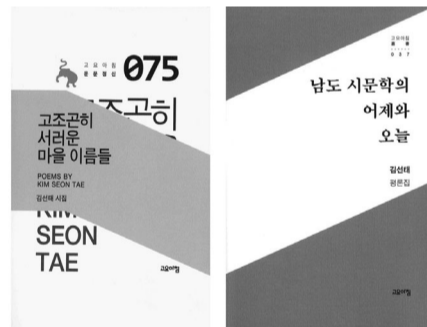
고향의 기억을 되짚는 66편의 시

고조곤히 서러운 마을 이름들·
남도시문학의 어제와 오늘
김선태 | 고요아침 | 1만2000원·2만원

김선태 목포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가 시집과 문학평론집을 동시에 펴내 화제다.

김 교수는 아홉 번째 시집 '고조곤히 서러운 마을 이름들'과 문학평론집 '남도시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최근 출간했다. 시집은 고향의 기억을 되짚는 66편의 시로 채워졌다. 문학평론집에는 그가 평생 애정을 갖고 천착해 온 남도시문학에 관한 평론들이 수록됐다.

김 교수는 강진 출신으로 1993년 광주



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해 시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애지문학상, 시작문학상, 송수권시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전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는 목포대에서 시를 가르치며 올해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박찬기자

맑은 어린이의 눈으로 돌아가 동심으로 바라본 세상

아가의 꿈
강상구 | 휴먼앤북스 | 1만2000원



한 저자가 펴낸 시집이 출간돼 화제다.

강상구 시인은 평소 등산을 하며 딱따구리, 뺨꾸기, 우거진 숲, 대나무, 천사섬, 신안 바람 소리, 진달래꽃, 철쭉, 계곡물 등을 모티브로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간직돼 있던 동심을 끌어낸다. 이렇게 끌어낸

동심은 그 대상을 동시화해 저절로 그의 시심(詩心)을 우러나오게 한다.

그에게 동시는 시의 원형이다. 맑은 어린이의 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언어 행위이기 때문이다. 동시를 지을 때 마음이 맑아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시집 '아가의 꿈'은 지난 2016년 출간된 '아기별탄생'에 이어 8년 만에 나온 그의 두 번째 시집이다. 동심을 자극하는 총 90편의 시가 담겨 많은 독자에게 즐거움과 추억에 젖는 경험을 선사한다.

선배 문인들과 지역 시인들의 축하와 추천사도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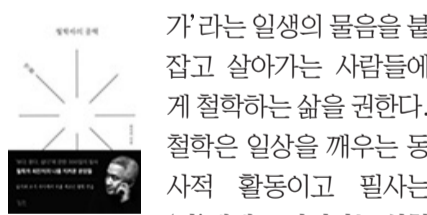
허형만 시인은 이 시집에 대해 "공직자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 글을 쓴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자 축복이다"고 전했다.

윤수천 아동문학가는 "강 시인의 동시에는 개울에 놓인 징검돌을 푹푹푹 푹 뛰어 건너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 있다"며 "장난기마저 느껴지는 그의 시에는 그가 문학을 대하는 마음이 어린이 마음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 도 좋은 동시들이 가득한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시집"이라고 평했다.

강 시인은 담양에서 초·중학교를 나와 광주 석산고,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선천의 권유로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공무원에 임용돼 장흥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남도청, 기획재정부 근무 등을 거쳐 현재는 전남도에너지산업공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찬기자

철학자의 공책
최진석 | 공리 | 2만5000원

인류의 삶은 질문에서 나온다. 새해, 최진석 철학자의 통찰을 담은 300편의 문장이 실린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저서, 강연,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말과 글을 다듬어 필자 형식으로 엮어 쓴 작품이다. 그에게 종이란 '나'를 읽고 쓰기 위한 공책이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라는 일생의 물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철학하는 삶을 권한다. 철학은 일상을 깨우는 동사적 활동이고 필자는 '나'에게로 건너가는 실천이라고 최 교수는 주장한다.

눈앞에 당면한 현실을 살아가는 데만 급급해 지쳐 있는 지금, 파도처럼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 잠시 멈춰 자신에게 철학적 사유를 던져 보는 것은 어떨까. 박찬기자

가부장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 몸가짐

늑대가 운다
안영실 | 문이당 | 1만6000원



돌아왔다.

이 책은 소외된 자들의 잃어버린 영토를 찾는 모성 담론이다. 그동안 여성, 사회적 약자인 주변부 인생의 삶과 애환을 천착해 온 안 작가는 이번 신작에서 이러한 고찰을 이어간다. 그는 여성의 자기 정

체성 형성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가능할 뿐 결국은 가부장제의 질서로 회귀한다고 꼬집는다.

이번 소설집에는 8개 작품이 수록됐다. 작품의 주인공은 대부분 여성 화자이며 이들에게 집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억압적 공간으로 자리한다. 억압적 공간에서 현실적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은 자신을 왜곡시켜서라도 가족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번 신작에서 그가 소재로 선택한 '어머니와 딸의 서사'는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가부장 의식의 소재는 다양하게 변주돼 등장하리라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나 안 작가는 어머니와 딸의 서사를 초월한, 현실의 벽을 뚫기 힘든 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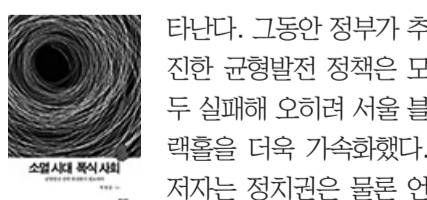
제 안에서 포용의 시선으로 가정의 화합을 보여준다. 단순히 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지닌 존재들에게 초월적 관계로의 확장을 꾀한다. 이는 가부장제 벽의 공고함을 극복하려는 더 적극적인 몸가짐으로 읽힌다.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을 비롯해 김애란, 백가흠, 안영실 등을 한국문학을 새롭게 만드는 신세대 소설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덕화 평택대 명예교수는 안 작가에 대해 "풍부한 서사성과 그에 걸맞은 문체, 논리력까지 두루 갖춘 작가"라면서 "이번 작품도 권력과 폭력에 의해 바깥으로 밀려나 억압받는 여성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평했다. 박찬기자

소멸 시대 폭식 사회
박현갑 | 리북 | 1만5000원

인구·지역소멸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국가소멸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적색경보를 끄기 위해서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자는 지역 불균형발전이 '폭식 사회' 때문이라 규정하고 이를 '상생 사회'로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수도권 폭식 현상은 일자리·교통·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나



타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해 오히려 서울 불랙홀을 더욱 가속화했다. 저자는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무책임하고 편향된 지역 발전 논리를 날카롭게 꼬집는다.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수립을 위해 4대 전제조건과 5대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직관적으로 안내한다. 박찬기자

